

# 리빙콘텐츠 DIT센터 5년 여정 '한눈에'

한국전통문화전당,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종료 맞아 '성과보고 전시회' 24일까지 개최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사업 시행 5년을 마감하는 전시회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리빙콘텐츠 DIT센터'의 사업종료를 맞아 지난 5년여의 여정을 담은 '성과보고 전시회'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15일 전당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오프닝에는 김도영 원장을 비롯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혁신과장, 전북시제품제작소 센터장,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들이 참석해 센터 경과보고, 그리고 센터 운영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패 전달 등의 시간을 가졌다.

전시회는 DIT센터가 5년 동안 운영해 온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운영맵 또는 사진, 영상, 그리고 메이커들의 다양한 제작품들로 구성됐다.

전북 최초로 구축된 '리빙콘텐츠 DIT센터'는 지난 2018년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일반과)에 선정돼 2019년 1월 11일 문을 열고 지난 5년여 간 지역 메이커운동을 선도해 왔다.

DIT센터는 3D프린터를 비롯해 목공, 디지털 등 각종 장비들을 갖추고 시민들은 이 장비들을 활용,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체험, 교육,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특히 안전교육 및 보유장비와 공간활용을 기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리빙콘텐츠 DIT센터'의 사업종료를 맞아 지난 5년여의 여정을 담은 '성과보고 전시회'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14일 열린 오프닝에는 김도영 원장을 비롯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혁신과장, 전북시제품제작소 센터장,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들이 참석해 센터 경과보고, 그리고 센터 운영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패 전달 등의 시간을 가졌다.

초교육인 △에비메이커 교육, 한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 참여 심화교육인 △아트메이커 교육, 창작·놀이·공연 등을 통해 문화확산과 제작의 가치는 담은 프로그램인 △메이커투게더 교육, 1일 메이커교육인 △언제나 DIT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그 결과, 센터 운영 5년간 총 10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92회 운영해 왔으며, 교육에 참여한 순수 인원만도 1만4821명에 달하고 있다.

김도영 원장은 "메이커 스페이스 5년 사업의 마무리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며 "어떻게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창작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지 고민한 뒤, 보다 업그레이드된 공간으로 문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영 원장은 "메이커 스페이스 5년 사업의 마무리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며 "어떻게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창작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지 고민한 뒤, 보다 업그레이드된 공간으로 문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영 원장은 "메이커 스페이스 5년 사업의 마무리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며 "어떻게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창작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지 고민한 뒤, 보다 업그레이드된 공간으로 문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영 원장은 "메이커 스페이스 5년 사업의 마무리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며 "어떻게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창작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지 고민한 뒤, 보다 업그레이드된 공간으로 문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북예술로' 참여 기업·기관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가 협업사업... 24일까지 이메일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이하 전북예술로) 운영기관 공모에 선정, 국비 약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예술로'는 예술인들이 도내 기업·기관(마을)의 이슈를 예술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예술가들은 협업활동에 따라 월 120~1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이 사업에 도내 10개 기관과 시각·공연 분야 예술인 50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재단은 '전북예술로'에 참여할 도내 기업·기관(마을)의 모집을 시작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도내 기업·기관(마을)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기관(마을)은 예술가 그룹과 더불어 기업의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공고 및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이메일(jartoad23@gmail.com)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5)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

**기업·기관(마을) 공개 모집**

**3.10. ~ 3.24.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예술인(시각·공연)가 기업·기관(마을)의 이슈를 예술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적 가치, 협업·공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모기간:** 2023. 3. 10.(수) ~ 3. 24.(금) 18:00PM  
**신청방법:** 2023. 4. 4.(수) 18:00PM  
**발표일:** 2023. 4. 4.(수) 18:00PM

**신청자격:** 예술인의 가업을 운영하거나 예술을 통한 수익을 얻을, 법인·개인·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한 도내 기업(마을)이다.

**유망분야:**

- 예술인 파견 지원(국비 약 4억 원) 및 1인 1회 100만원 지원
- 예술인 파견 지원(도비 약 2억 원) 지원(중소기업, 중견기업)
- 예술인 파견 지원(시·군·구비) 지원(중소기업, 중견기업)
- 기업·기관(마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
- 기업·기관(마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

**문의처:** 전북문화관광재단 (063-230-7445) | www.jartoad.or.kr

## 전주국제영화제, 4월 10일까지 '서포터즈' 모집... 혜택 '풍성'

전주국제영화제가 서포터즈를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영화제의 유료 회원제인 '서포터즈'에 가입한 관객에게는 회원카드가 발급되고,

공식 책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영화제 상영작 예매 시 1000원 할인이 적용되고 굿즈숍의 기념품도 1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일반 상영작 예매가 가능한 온라인(모바일) 예매권 2장과 게스트 패키지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회원은 가입비 5만원을 추가 결제하면 신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뉴시스

## 전통공연예술 진수 '토요국악무대' 부활

국립민속국악원, 올해 총 12회 기획공연... 25일 첫 공연 시작

국립민속국악원은 지난 2006년도 이후 중단되었던 '토요국악무대'를 오는 25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다시 펼쳐진다.

'토요국악무대'는 지역민들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전통공연예술의 진수를 선보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2023년 만나게 될 기획공연은 총 12회로, △민속악의 멋과 흥 △국악연주단 특별기획 △단막창극 등 3가지 테마로 준비된다.

오는 3월 25일 첫 공연은 국악연주단 창극단 악장 양은주(관소리 명창, 제42회 춘향국악대전 관소리 명창대회 대통령상 수상)의 사회, 기악합주 '걸음마다 꽃이 피소'를 비롯해 관소리 심청가, 살풀이춤, 민요, 삼도풍물가락 등 5가지 민속악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관람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 5월에는 남원 춘향제를 기념해 단막창극이 준비되어 있어 카카오톡 채널 및 전화(063-620-2329)를 통해 국립민속국악원의 공연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익산문화원, 전통문화 계승 '전통혼례식' 진행

18일 다문화가정 신혼부부 지원

익산문화원(원장 이재호)은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가치와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전통혼례식을 진행한다.

문화원은 오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익산문화원 야외광장에서 다문화가정 신혼부부를 위한 전통혼례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통혼례식은 이재호 문화원장의 집례로 진행되며 청사초롱을 앞세우고 신랑과 신부의 입장, 처음 만나 맞절하는 교배례, 술잔과 표주

박에 각각 술을 부어 마시는 합근례, 전통혼례 인증수 수여 등 요즘 보기 힘든 전통혼례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신랑과 신부의 행진 때에는 하객들이 팔과 쌀을 한 줌씩 쥐고 있다가 신랑 신부를 향해 던져 액운을 물리치고 행복을 기원하는 행위를 함께 기원한다. 이재호 익산문화원장은 "앞으로도 전통혼례와 같은 우리의 고유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재현함으로써 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호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가죽공예 '미니 가방 만들기' 체험행사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상기)은 3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로 가죽공예 '미니 가방(클러치) 만들기'를 진행한다

오는 25일 오후 2시와 4시 국립전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체험행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차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참가 신청은 17일~22일까지 박물관 누리집에서 예약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가죽공예 체험행사는 검정, 회색, 남색 등 다양한 색상의 소가죽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유럽전통 가죽공예 기술인 '새들 스티치' 실 양쪽 끝을 바늘에 꿰어 두 개의 바늘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실이 살아남아 잘 풀리지 않고 견고함을 유지한다. 또 손바느질 기법을 배우면서 견고하고 탄탄하게 가죽을 엮는 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가죽공예를 체험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가죽공예**

**미니가방 만들기**

**3월 25일**

**2시, 4시**

**국립전주박물관 세미나실**

**예약 접수:** 3.17.(수) 10:00 ~ 3.22.(수) 17:00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참가 대상:** 성인(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어린이 동반 시 1인당 1명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namwon.museum.go.kr)을 참조하십시오.

**국립전주박물관**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